



시민지원단 15만 ‘참여체전’ 이끈다

2007 광주전국체전 개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0월 8~14일까지 일주일간 광주시와 전남 일원에서 펼쳐질 '제88회 전국체육대회'는 지난 1993년 제74회 대회 개최 후 14년만에 광주에서 두 번째로 열리게 된다. 전국체전은 전국 16개 시·도 및 해외동포 선수·임원 등 3만여명이 일주일간 체재하는 대규모 체육행사로 경제 유발효과 4천억원, 고용효과는 4천833명에 이른다.

또 대회개최로 '문화수도' '민주인권도시' 광주의 위상과 성숙한 일등 시민의식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광주시는 제8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광주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편집자 주)

기존 경기장 개·보수 '알뜰체전'

◇경기장 신속 등 준비상황= 전국체전의 성공 여부는 매끄러운 경기 진행과 운영에 달려있다.

'제88회 전국체육대회'의 경기 종목은 모두 41개, 이들 경기를 소화할 경기장 수는 66개다.

이중 59개의 경기장이 광주에 있으며, 7개는 전남지역에 위치해 있다.

또한 2007년 광주 체전에 이어 다음 해인 2008년 체전은 전남도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체전 바통을 주고 받아야 할 광주시와 전남도는 일체감치 협력 체제를 구축, 88회 광주체전과 89회 전남체전에 필요한 경기장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광주시는 재정여건과 체전 후 관리 등을 감안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 신시설을 가급적 축소 ▲기존 체육시설을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해 최대한 활용 ▲양호한 시설은 점검 후 사용한다는 등의 경기장 정비 방침을 세웠다.

특히 시는 예산이나 여건상 자체적으로 경기장 확보가 어려운 6개 시설들에 대해서는 전남도의 협조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키로 했다. 이로 인해 시가 경기장 신설 및 개·보수에 투입하는 예산은 총 277억원에 달한다.

시는 전남도의 협조로 여유가 생긴 사업비를 서구 염주체육공원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천650여평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신설 경기장 중 가장 많은 예산(96억원)이 투입되는 다목적 체육관은 8월말 완공예정이다. 전국체전 중에는 핸드볼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대회종료후에는 선수 훈련센터와 시민생활 체육시설 등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활용된다.

체전에 활용되는 66개 경기장은 ▲신설 4개-인라인롤러경기장(수완지구), 다목적체육관(중앙동), 하키장(조선대), 정구장(양산동) ▲개보수 56개-광주 50(시 19·자치구 3·교육청 13·국립대 9·민간시설 6), 전남 6(사이클 2·요트·사격·카누·조정) ▲시설 양호 6개-마라톤, 축구장(3), 배구, 골프 등이다.

시는 이들 경기장에 대해 지난 해 12월까지 기초조사와 개보수 설계를 마쳤으며 올 1월 경기장 사용승락 협약체결 및 개보수공사에 들어가 오는 7~8월까지 경기장 시설 공·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중 체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성화대는 대회 주경기장인 월드컵경기장에 설치된다.

◇경제유발 효과만 4천억원 = 전국체전 개최 시·도는 전국 16개 시·도 및 해외동

■ 광주전국체전 6개월 앞으로



〈다목적 체육관 조감도〉



〈인라인 롤러 경기장 조감도〉

포 선수·임원 등 3만여명이 일주일간 체재하면서 지출하는 돈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전국체전을 통해 지역의 대외 이미지 개선으로 해당 시·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쟁력이 향상돼 장기적으로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로 관광산업 활성화 할 수 있는 부수적 이의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스포츠인프라 구축과 지역 체육발전은 물론 시민 여가향상에 기여하고, 대규모 행사 진행에 따른 노하우 축적으로 향후 국내·외 행사 개최 가능성을 높이는

유·무형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국내는 물론 해외거주 동포들까지 광주를 방문, 발전된 광주의 위상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대외에 효과적으로 알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지난 2005년 울산광역시 전국체전 후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천963억여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천2백89억여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거뒀다. 또한 3천5백68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거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2007년 제88회 광주 전국체육대회를 치르면 광주는 4천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대지방자치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전국체육대회를 통해 약 4천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천2백54억여원의 생산유발 효과, 715억여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기에 광주 전국체육대회를 치른 후 다시 광주에 오는 관광객 유발효과는 9백68억여원이며 4천833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처럼 수치화 된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문화수도로서 이미지 제고, 자원봉사를 통한 시민화합, 국제대회 인프라 구축 등 무형적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요트장 등 6곳 전남시설 무상 사용

◇시민들의 동참이 성패 좌우

전국체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주 시민의 동참이 우선돼야 한다.

따뜻하게 손님을 맞는 자세에서부터 교통 및 숙박 대책 등 손님맞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광주시는 15만명의 '시민 지원단'을 모집하는 등 시민체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체계적인 체전 준비를 위해 대회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하 3개 기구를 구성한다. 대회조직위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200여명선에서 구성되며, 대회 집행위원회·범시민자율추진협의회·범시민후원회 등으로 조직된다. 조직위는 선수단이 머물 숙소확보와 도심정비, 대회 안전 등을 유관기관과 협력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민·사회단체와 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시민 지원단은 개·폐회식 행사 참여는 물론 대회 기간 동안 각종 자원봉사와 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광주 특유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해 타 지역의 체전과 차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회 기간 중 시·도 및 해외동포 선수단의 자매결연과 열린음악회 개최, 문화예술 축제와 특별 상설이벤트 광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87회 김천 전국체전에서 숙박시설 부족으로 참가자들이 수일 동안 불편을 겪은 점을 중시, 숙박 대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에는 호텔급 숙소 22개, 여관·모텔 822개, 수련원 및 연수원 시설 10개 등 타 지역에 비해 여유있는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어 객실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시는 '숙박·음식안내센터'를 개설, 숙박시설 주변 식당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 점검을 통해 숙박·음식점을 연계한 지원 대책을 마련중이다. 또한 각 구별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경기장·선수단 숙소 주변의 식품 및 위생업소에 대한 집중관리를 벌일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